



Hello! I am Sister Constance Bahl. Music has always been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Mother frequently danced with me and every night she sang a lullaby. For my first birthday my parents gave me a toy xylophone that played real notes. I discovered how to make those notes into songs. For my fifth birthday I received a toy grand piano on which I could play even more songs. The best gift was for the whole family – a real grand piano! I insisted on starting immediately. Camping and Girl Scouts both offered many

opportunities to sing and dance. During my school years I participated in anything musical including piano and voice lessons. Irish dancing at Elizabeth Seton High School was special.

In 1960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 studied Gregorian chant and organ in novitiate. For twelve years I taught in various parochial grade schools. This always included teaching classroom music and sometimes also piano and organ. There were opportunities to direct choirs: children and adults, parish and dioce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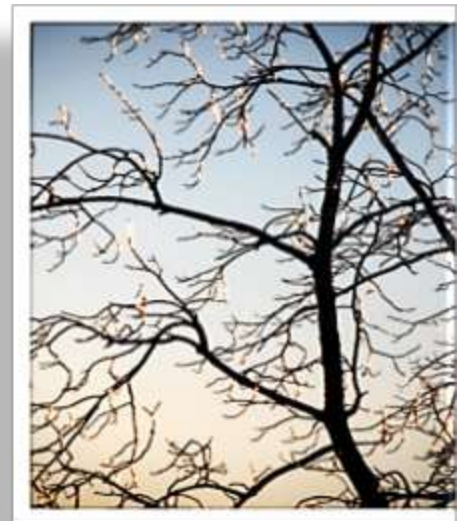


Eventually I moved into various areas of pastoral ministry but I was never far from music. I was a Director of Religious Education in Wilkinsburg and also sang in the parish choir. At Marshall University I directed liturgical music and sang with the university's Master Chorale. In Preston County, West Virginia, my work included liturgical music: planning liturgies and directing a choir. I was cantor and organist, and taught

others how to do so. In one parish I formed and directed a folk group. When I worked with visually impaired people in the Diocese of Pittsburgh I developed a braille hymnal. I sang with the Bach Choir of Pittsburgh. When I worked as a hospital chaplain in Altoona, I planned liturgies, served as cantor and even sang with patients and families at the bedside. In addition I sang in the Jubilate Deo Choir.

Now that I am back at Seton Hill, I am teaching piano in the Seton Hill University Community Music Program.

*Beauty and longing,
Deep places touched by music.
Awesome voice of God.*





안녕하세요! 저는 콘스탄스 베ahl 수녀(Sister Constance Bahl)입니다. 음악은 제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주 저와 함께 춤을 추었고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제 첫 번째 생일에 저희 부모님은 실제 음을 연주할 수 있는 장난감 실로폰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실로폰 음으로 노래를 연주하는 법을 알게 되었지요. 다섯 살이 되는 생일 날, 저는 더 많은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장난감 그랜드 피아노를 받았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은 그랜드 피아노였지요! 저는 피아노를 보자마자 연주를

하겠다고 우겼어요. 캠핑과 걸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노래하고 춤추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었어요. 학창시절 동안 피아노와 노래 교습과 같은 음악활동에 참여했는데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Elizabeth Seton High School)에서 배운 아이리시 댄스는 특별했지요.

저는 1960년에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수련소에서는 그레고리안 성가와 오르간을 배웠어요. 12년 동안 교구의 여러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음악 수업을 했고 때로는 피아노와 오르간도 가르쳤지요. 그리고 본당과 교구의 어린이들과 성인들의 합창단을 지도할 기회도 있었어요.

저는 다양한 지역에서 사목활동을 했지만 음악은 늘 가까이 있었어요. 윌킨스버그(Wilkinsburg)에서는 종교교육을 담당했고 본당 성가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마샬

대학교(Marshall University)에서는 전례음악을 가르치고 대학의 마스터 코랄(Master Chorale)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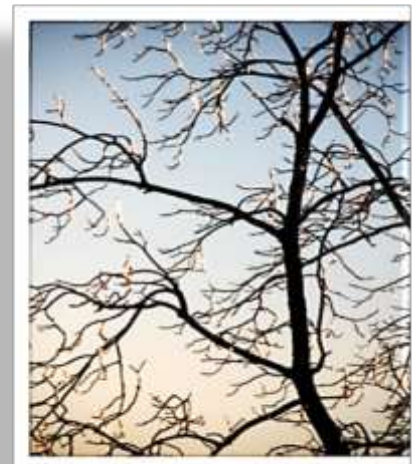


불렀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프레스턴 카운티(Preston County)에서는 전례를 준비하고 성가대를 지휘했어요. 제가 하는 일에 전례음악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제가 선창자이자 오르가니스트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한 본당에서는 포크 음악 그룹을 결성해서 지도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교구의 시각 장애우들과 함께 일할 때는 점자로 된 찬송을 개발했어요. 또 피츠버그 바흐 합창단(Bach Choir of Pittsburgh)에서 활동을 했고요. 알투나(Altoona)에서 병원원목으로 일할 때는 전례를 준비하고 선창도 했으며 환자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침상 옆에서 노래도 불렀답니다. 그리고 주빌라테 데오 합창단(Jubilate Deo Choir)에서도 활동을 했어요.

지금은 씨튼힐로 돌아와 씨튼 힐 대학의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Seton Hill University Community Music Program)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그리움,
음악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네.
경이로운 하느님의 목소리**